

지역 소식통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제거 지원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8억3,800만원 규모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는 사업비 총 18억3,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30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한 채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조건과 기준은 정읍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고창군보건소가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파악 및 유행 조기 인지를 위해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27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임곡회 내과의를 선정했다.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DI)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감염병 감시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창군 지역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행 초기 단계에서 예방접종 홍보 및 고위험군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 건강보호와 지역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선 8기 성과 완성 박차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업무 329건 보고·구체적 대응 방안 논의

정읍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주요 정책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새롭게 업무를 맡은 부서장들이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유호연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단위로 국장, 부서장, 주무 팀장이 참석했으며,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각 부서가 2026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공약 사업 329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이 된 핵심 사업은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운영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한국가요촌 달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정읍 메이플랜드 익스트림 놀이시설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수소충전소 구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정읍 국립수목원 진입도로 개설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공유센터 건립 등 정읍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이학수 시장은 "사업 수립 단계부터 산출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방식

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민선 8기 시정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산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2026년 군정 비전 공유·주민과 소통시간 가져

부안군 주산면(면장 나용성)은 27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결실창대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하늘빛주산회(회장 황희철)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J바이오(주)(대표 김진성, 주산면 체육회장 김백만 회장의 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나용성 주산면장은 "면민이 잘 사는 희망찬 주산"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 주산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했

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 군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군정 비전을 공유하며 올 한 해 군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용성 면장은 "군정과 면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면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면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주산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정주 기반 강화... 내달 20일까지 모집

부안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및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총 42동을 정비한다.

철거 비용은 지붕 구조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 지붕은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부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일반 지붕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문

화예술 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총 11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 빈집 확정 후에는 임차인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대상자가

고창군, 설 맞이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판매

월 구입한도 1인당 100만원

고창군이 2월 한 달간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 판매는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선할인 10%에 더해,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대 20%의 실

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와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달 간 총 1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품권 할인 정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 특별 할인판매 역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현역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전액 지원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이 사고나 질병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에 대비해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주

민등록을 두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모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 보충역·대체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복지지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하며 청년 본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다. 특히 이번 보험은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항목은 총 13개 분야로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 사망 △상해 및 질병 입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전우수술비 △품질 발생 위로금 △화상 발생 위로금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문의나 접수는 통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